'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를 통해 본 한국패션

조 우 현⁺ · 김 미 진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Korean Costume shown on 'The Journey of Duty in 1954~55'

Woo Hyun Cho⁺ · Mijin Kim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9. 25, revised date: 2015. 10. 10, accepted date: 2015. 11. 16)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better understand the lifestyle and fashion trend of Korea in 1954 and 1955, a period right after the Korean War. The study examined "The Journey of Duty", which was a color slide film of Seoul and Suwon made by a US soldier stationed in Korea during that time, as well as various documents. The films are assumed to be outcomes of the US Army wanting to record the situation in Korea, and the study was able to use 110 of the slides to examine the fashion trend of the times. There are three noticeable trends shown on "The Journey of duty". Koreans in western clothes, women wearing work pants called Momppae, and black color being in fashion. Most of the men and the children either wore only western clothes or western clothes with the Hanbok. But women rarely wore western-style clothing, such as blouse with skirt. They usually wore Hanbok or wore reformed Hanbok. The work pants, Momppae, becoming an everyday wear is the most unique finding from the slides. Women either wore just the pants or over the traditional Korean skirt. Black-colored clothes were in fashion. This color first spread after the Costume Reform Movement in the 1920s' and the prohibition of white robe. The wearing of white clothes did increase after the Korean liberation in 1945, as national spirit was promoted. However, many people still wore black due to economic reasons, as well as practical reasons. So the Korean fashion in 1954-1955 was in a transition period, as people were beginning to change their daily wears from traditional Korean costumes to western-styled clothes. The reasons for this change could be attributed to people only having access to western goods, as well as their awareness of western-styled clothes being more practical.

Key words: Momppae(몸뻘), Korean fashion trends(한국패션), The Korean War(한국전쟁),
U.S. Army's photos(미군기록사진),

I. 서론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한, 3년이 넘게 지속된 전쟁으로 많은 인명과 물질 피해를 남긴 한국사회전반의 근간을 뒤흔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전후(戰後), 조속한 재건과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체성을 구성해야했던 시기로 전통과 근대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경합하였던 용광로 같은 시기이다(Kim, 2006).

이 시기의 한국복식문화에 관한 연구는 의상학쪽에서 Yoo(1988), Park(1993), Park & Kang(1994), Yoo(1996), Kim, Kim, & Choi(2005), Yoon(2011) 등이 있는데, G.I.문화로 대변되는 미국문화와 구호품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 양장착용이 가속화되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물자부족으로 전반적인 한국복식문화의 발달은 둔화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Yoon(2011)는 전쟁 당시 몸빼가 전시복으로 착용이 장려되었다는 것과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가담해야했던 사회적 환경 때문에 필요에 의해 노동복으로 착용했고 이후 적극 수용되었음을 밝혔다. 인문사회과학계에서도 근대성과 관련하여 의복변천 혹은 한복개량운동에 중점을 둔 연구가 있었다. Kim(2007)은 “해방이후 1960년대 초까지 여성의복 변천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논의를 포스트 식민주의적 정체성의 정치”라는 관점이라고 보았으며 Kim(2009)은 1950년대 “신생활운동을 전후재건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근대화 운동으로 소비통제적인 가정개량운동”으로 보았다. 의복간소화와 국산품애용, 한복개량과 양장의 상용화 등 전후 물자부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서구적 풍조가 확산되는 것은 극도로 경계하였으며 이는 여성복식에 한정된 매우 성별화된 방식으로 전개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6.25전후의 한국복식문화에 관한 연구는 넓게는 개항이후, 좁게는 해방이후로부터 1960년대까지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층화되고 세분화된 주제의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지만, 아직 시작단계이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큰 구조(big structure)”

로부터 “작은 이야기들(small narrative)”을 조망(Scott, 1978) 하는 작업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시대라는 씨줄을 관통할 심층적이고 정교하게 분석되어 각론화 된 날줄을 꼬아 직조한 시대상이라는 큰 그림을 촘촘히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Hahm, 2006).

한국전쟁과 전후를 기록한 대표적인 매체는 사진이다. 데이비드 더글러스 던컨(David Douglas Duncan) 처럼 유명한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사진부터 군 사진병, 종군 기자, 아마추어의 사진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전쟁에 관련한 사진은 수십만 장에 이른다고 하는데(Kim, 2011) 당시 군의 활동과 민중의 생활상, 전후 환경과 재건의 모습을 담은 귀중한 사료이나 국내에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 근래 미국의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6.25전쟁 연구비용을 대폭 삭감해 향후 관련 자료에 대한 우리의 접근기회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기록 자료의 발굴과 확보가 시급하다(Lee, 2015). 한국전쟁기록사진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Kim(2005, 2010, 2011), Park(2011), Park & Min(2011), Kang & Jung(2014) 등이 있다. Kim(2005, 2010, 2011)과 Park(2011), Park & Min(2011)은 기록사진을 통해 조명하는 한국전쟁 및 전후 생활상에 관한 연구 및 재현과정, 방법을 분석하였는데 혼혈인, 양공주, 여성 등 전쟁으로 인해 생성된 사회적 약자가 재현된 모습을 대상으로 하였다. Kang & Jung(2014)은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기록한 미군 사진병(military photographer)과 그들의 시각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미군 사진병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 규명한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한국전쟁 및 전후 상황을 기록한 사진에 대한 연구는 알려진 방대한 자료의 양에 비해 매우 적으며,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복식문화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50년부터 1955년까지를 연구범위로 규정하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기록자료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를 중심으로 6.25전쟁 직후의 한

〈Fig. 1〉 A slide Film box of
‘The Journey of Duty Korea in
1954~55’ & its contents
(photography by researcher)

〈Fig. 2〉 No. 123. Son, Lee + Me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a)

국복식문화와 당시의 생활상을 신문기사 및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신문기사는 1950년부터 1955년까지 동아일보와 경향일보의 기사를 ‘의복’, ‘한복’, ‘양장’, ‘의상’, ‘복장’, ‘옷감’, ‘구호물자’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선별한 142건을 분석하였다.¹⁾ 기타 사진자료는 조선일보 사진 DB 81컷을 포함한 총 300여점을 활용하였다.

Ⅱ.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와 미군기록사진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미공개 자료²⁾로, 슬라이드필름 418개, 흑백필름 1롤(16컷의 사진), 각 필름 컷에 대한 설명자료³⁾가 포함되어 있었다. 필름과 설명지가

담긴 철제 상자 앞면에 ‘KOREA 1954~55’라 명시되어 있고 A4용지 크기의 설명자료 상단에 붉은 글씨로 “Korean Tour of Duty__April 1, 1954-”⁴⁾라고 적혀있어 미군이 6.25전쟁 직후, 한국 상황을 기록한 특정임무자료로 추정된다(Fig.1). 슬라이드 필름에는 1번부터 417번까지 고유번호가 있었는데 366번이 중복되어 총 418컷이었다. 각 컷의 고유번호는 설명 자료의 내용과 교차비교하며 정리하였는데 지역, 기관명, 이름, 직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촬영한 자가 미 8군에 소속된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본인을 ‘Me’ 또는 ‘I’로 표기해 이름은 알 수 없었다(Fig. 2).

미군에 의해 남겨진 한국전쟁사진은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 급파된 맥아더 미군 총사령관 직속 미 육군 71통신대 A중대(사진부대)소속 사진병 3명(Kim, 2013)⁵⁾과 국내에 주둔한 미 군사고문단(KMAG)소속 윈슬로(F. J. Winslow)중위 등 미군 4

1) 검색기간은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이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상세검색을 검색엔진으로 활용하였다. <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Details.nhn>

2)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동국사 주지 종걸스님께서 코베이(Kobay) ‘삶의 흔적 경매’를 통해 2013년 6월경에 입수한 자료이다.

3) 설명자료는 2가지 형태로 있었는데 초기 6개의 필름의 번호와 제목이 적힌 6장과(magazine no.1부터 no.6까지 번호가 매겨졌음) A4사이즈 종이에 마운트(mount)작업(필름 한 컷씩 잘라 틀에 끼우는 작업)이 된 필름 번호와 제목이 적힌 14장이었다. 자료의 형태가 2가지인 이유는, 임무초기에 슬라이드 필름 1롤당 36컷씩 순

서대로 기록정리를 하다가 마운트작업을 하면서 A4용지에 다시 정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4) 본 연구의 제목인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는 설명자료 상단에 적혀있던 “Korean Tour of Duty__April 1, 1954”와 슬라이드 필름 상자 앞면에 적혀 있던 “KOREA 1954~55”를 조합하였다.

5) 6.25전쟁 발발 직후 한국에 급파된 미 육군 71통신대 A중대(사진부대) 소속 사진병 3명은 찰스 턴불(Charles R. Turnbull)병장과 로널드 헨콕(Ronald L. Hancock)일병, 로버트 뎀젤(Robert Dangel)상병이었다.(Kim, 2013)

〈Table 1〉 The Organization of the US Army Signal Corps Photo Unit

〈Fig. 3〉 No. 152. Koreans in Typical Dress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b)

〈Fig. 4〉 No. 301. Typical Korean Dress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c)

명이 전쟁초반을 사진으로 기록하였다. 같은 해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미군은 전쟁역전, 군사적 승리와 적지 점령 및 군사, 민사활동을 기록을 위하여 미8군과 각 군단, 사단 예하에 사진부대를 조직하였고, 10월 중순 176통신사진중대가 서울에서 활동을 시작하였고 71통신대 A중대는 전략적 사진 활동에 집중하였다. 수복, 점령지구 및 주요 전투 지역에서 영상팀 활동이 강화되었고 스틸사진가와 함께 영상카메라맨이 동행하였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사진부대의 조직은 〈Table. 1〉과 같다(Kang & Jung, 2014).

사진병들이 남긴 사진은 단순 이미지뿐만 아니라 생산일, 공보발간일, 생산기관, 생산자, 생산기관 분류번호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인화되지 않은 필름형태였기 때문에 현재 미국 NARA에 보관되어있는 자료의 형태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1953년 휴전이후, 미8군은 남한에 주둔하게 되었고 8월 용산기지로 이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U.S. Army & Yongsan base, n.d.) 본 자료를 촬영한 사진병은 사진 속에서 보이는 이동경로나 부대

환경 등으로 보아 용산기지에 적(籍)을 두고 활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슬라이드 필름은 이동경로의 순으로 정리하였고, 캘리포니아(미국)-하와이(미국)-도쿄(일본)-에타지마섬(일본)-인천(한국)-서울(한국) 등의 순서로⁶⁾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선 서울과 인천 외 수원, 부산 등지를 촬영하였고 특히 서울지역은 서울역부근, 영등포, 을지로, 남대문, 용산, 명동 등에서 미8군 부대건설 및 관련 시설, 시민들의 생활상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당시의 복식문화를 확인할 수 있던 사진은 110컷이었다. <Fig. 3, 4>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군은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를 한국인의 전형적인(Typical) 복식으로 인식하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들이 외부에서 한국복식문화를 바라보는 타자성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Ⅲ. 1950년부터 1955년까지 사회적 배경 및 한국복식문화

1950년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은 6.25전쟁과 미국이다. 6.25전쟁으로 인한 또한 공보처 통계국이 제시하고 있는 6.25사변 종합피해조사표에 따르면, 한국전쟁의 총 피해액은 4,106억 원으로 1953년 국민소득 2,450억 원의 1.7배에 달할 만큼 한국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의 물질 피해는 일반주택 및 학교 피해여서 일반 대중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산업기반의 경우, 제조업의 건물과 시설피해는 40~50%의 피해율을 보이는데 이중 80%가 방직공업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면방직이 전체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서울(43%), 경상도(25%), 경기(9.7%)지역으로 전체 피해지역의 약 80%에 달하였다.(Kang, 2002) 이와 관련한 당시의 자료를 보면, 1950년 11월 7일자 Dongailbo(1950)에

“상공부와 경협에서 조사한 바를 종합하여보면 6.25사변을

계기로 한 공비들의 남침은 남한공업시설에 물경 76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 이를 업종별로 대별하면 섬유화학기계공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업종별 피해상황은 섬유 627억, 화학 8억 기계 53억이라고 한다.”(‘6 billion won damage only in a textile industry’, 1950)

기록되어 있어 당시 남한공업시설 피해의 약 82.5%의 해당하는 피해를 섬유공장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명피해는 유엔군을 포함한 한국군 776,360명이며, 일반인의 인명피해는 990,968명에 달하였다(Hahm, 2005). 약 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산가족이 생겼고 5만 9천명이 전쟁고아가 되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수는 1952년 29만 3,852명이었는데 이중 전쟁으로 인한 수는 10만 1,845명이다. 특히 20~34살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사망하여 당시 15세~29세 여성 가운데 사별한 미망인의 비율증가 한국전쟁 전 6%에서 1955년 16.1%로 급증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전쟁참전으로 인한 가정 내 가장의 부재가 길어지고 남편의 사망으로 미망인이 수가 급증하자, 이는 곧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로 이어졌다. 전쟁전인 1949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28.4%에 불과했으나 1951년에는 63.7%, 1952년에는 58.4%로 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Ahm, 2011) 이는 휴전 후에도 전체 직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45%이상으로 나타나(Lee, 2003)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전쟁을 계기로 높은 비율로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6.25전쟁은 물질, 인적으로 참혹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여러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의 원조와 구호물자, 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유입된 미국의 대중문화는 한국의 1950년대를 “G.I.문화”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Park, 1993; Park & Kang, 1994). 1945년부터 1959년까지 한국이 해외로부터 받은 원조는 약 26억 9천만 달러이며, 그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95% 이상이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 GNP의 14.3%, 전체 세입의 40.5%로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었다(Park, 2010). 이러한 원조

6) 총 418컷의 슬라이드 필름 중 국외지역을 촬영한 것은 54컷이고 나머지, 364컷은 국내에서 촬영하였다.

는 한국의 경제안정 및 정치군사적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었다. 전쟁기간 기간 동안에도 ECA원조 및 UN원조를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장을 복구하였는데 1. 전쟁수행상 긴급공업, 2. 생활필수품공업, 3. 기초공업, 4. 수출공업, 5. 기타 공업의 순이었다. 섬유방직산업은 당시 최우선순위로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1954년 정도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Reconstruction of Korea', 1954)되었다. 섬유방직산업의 빠른 회복은 전후 복구와 재건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주도된 생활개선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활개선운동의 주요한 목적은 의생활 간소화와 국산품애용에 있었고, 의생활 간소화를 위한 주요한 방법은 옷감 절약이었다. 옷감의 절약으로 전후 물자부족의 상황을 타개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Kim, 2009) 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었는데 같은 이유로 당시 기반산업이었던 섬유방직산업의 복구가 우선시 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의 복식문화는 6.25전쟁의 경험, 절대적인 물자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 전후 복구와 재건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된 생활개선운동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틈타 유입된 밀수품과 구호물자, 미군의 한국주둔으로 인해 국내로 유입된 미국물품 및 대중문화 등 국내외의 여러 요소의 영향으로 한복과 양장, 전통과 근대, 서구와 비서구적인 것이 경쟁하고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가주도의 생활개선운동은 1949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생활운동, 1951년 전시생활개선법 공포, 1952년 전시국민복 제정, 1954년 국민생활 간소화운동, 1955년 국민생활검소화운동 및 국민내핍생활 강조주간, 1956년 신생활운동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 생활개선운동은 주로 소비통제를 통한 국민생활 간소화 및 검소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의생활 분야는 복장의 간소화, 몸빼 착용, 국산품 애용을 장려하고 사치품을 배격하였다. 복장의 간소화는 남성복의 경우, 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소매, 짧은 바지 등의 착용을 장려하였고 여성의 경우 깃이나 동정을 달지 않은 적삼에 치마 길이가 짧은 통치마 착용을 간이복으로 제정, 장려하였다. 전쟁기간 중엔 몸빼 및 전시국민복과 활동복을 제정하여 착용을 장려하였고 전쟁 후에는 국민생활복, 새 생활복,

국민복, 표준 간소복이라는 이름으로 검소한 복장발표가 계속되었는데 이는 양장과 함께 한복의 활동성 및 간편함, 실용적인 것을 목적에 둔 개량한복이었다(Kim et al, 2005). 이러한 복장의 간소화는 옷감을 절약하고('Old leaders', 1955) 소비를 통제하여 물자 부족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국산품 애용과 사치품의 배격 역시 같은 이유에서 기인한 장려 정책이었고 전쟁기간동안엔 사치품 단속과 배격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쟁 이후엔 사치품 단속을 하면서 국산품 장려에 힘을 썼다. 당시의 사치품은 대부분 밀수품이거나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미국상품들이었는데 외국산 옷감 및 모피, 귀금속 등 이었다. 밀수품은 해방이후 전쟁을 거치며 절대적인 의류물자 궁핍과 국내산 직물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없었던 것으로(Yoo, 1988) 유입된 이후 꾸준히 밀수품과 수입품 애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1952년 8월, 전시생활시행령을 공포하여 외국산 옷감 등을 일절 착용금지 시켰는데, 금지품목에는 외국산 옷감을 비롯하여, 모자, 양산, 핸드백 및 식음료품, 화장품, 기호식품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금, 백금, 14K금 이상으로 만든 가락지, 귀걸이, 팔찌, 비녀 등이 착용금지 되었고 의류품으로는 양단, 벨벳, 하바다이, 레이스, 조세드(georgette), 나일론으로 된 의류 등이 있었다('Promulgation war time', 1954). 나일론은 전쟁기간과 전후에도 사치품으로 볼 것인지 필수품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Is Nylon', 1954) 1953년 일본으로부터 처음 수입되었고(Yoo, 1988) 1954년 상공부에서 비사치품으로 규정하여 정식 수입을 허가하였다. 다음해인 1955년, 나일론을 비롯한 인조, 합성섬유의 대대적인 광고와 보급은 이후 한국복식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입품, 밀수품과 더불어 1950년대 한국복식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구호물자이다. 전쟁구호물자는 전쟁이 발발한 1950년 10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이 조직을 기점으로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UNICEF), 적십자사, 세계교회봉사단,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및 민간단체가 식료품, 의류, 의약품 등 다양한 구호물자를 제공하였는데 1956년까지 약 4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물자를 지

원하였고 자금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제공되었다. (Reconstruction and economic aid, n.d.) 1950년 10월 21일,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가결된 한국구제재건계획 8대원칙(‘UN. Approval of 8 plans’, 1950)의 제일우선권은 한국인의 식량, 의복, 주택, 급전염병 방지에 두고 있어 구호물자의 상당부분이 의류물품이었다. 1950년 말부터 유입된 구호물자(‘Reliefs’, 1950)는 궁핍했던 전쟁피난민들에겐 생존과 관련한 중요한 물품이었는데 1950년부터 55년까지 구호물자의 도착과 지원규모 등을 기사로 알리거나 재생해서 입는 방법에 관한 글이 자주 소개되었다.

IV. The Journey of duty에서 보이는 1954~55년 한국 복식문화의 특징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에서 보이는 당시의 복식문화는 전통복식과 서양복의 혼재, 여성들의 바지-몸빼 착용 증가, 검정색 옷의 유행 등의 특성을 보이며 전통복식과 서양복의 혼재 양상은 성별과 나이, 지역 차에 따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Fig. 5〉 No. 294, Hardware Store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d)

〈Fig. 5〉은 서울의 어느 거리를 포착한 모습으로 당시 복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양장을 착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자들의 양복착용은 1895년 공식적으로 착용이 허용

(‘Western clothes’, 1895)된 이래 양복착용이 근대화예의 동참과 사회의 엘리트임을 상징하는 자연스러운 수용경로를 통해서 확산이 비교적 용이하였는데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Kim, 2007). 이 시기 남성복식은 마카오복지 등 외국산 복지로 만든 사치품 단속, 복장의 간소화, 미국 군수물자 및 전쟁 때 착용한 군복착용금지, 구호물자 보급으로 인한 서양복 착용 확대 등이 특징적이다. 마카오 복지와 같은 수입옷감은 해방이후 방직공장을 운영하던 일본인 자본가의 귀국으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및 원면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한 급격한 생산 감소와 전쟁으로 인한 산업시설의 파괴 등으로 인한 절대적 물자부족으로 인해 수입·밀수 될 수밖에 없었다(Kim, 2007). 당시 마카오복지로 만든 양복은 국산품보다 2~3배 높은 가격⁷⁾에도 불구하고 인기와 수요가 많았는데 정부와 언론은 이를 사치품으로 간주하였고 전쟁기간동안 착용을 금지⁸⁾하였지만 같은 시기 일반인의 군복착용단속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마카오 신사들이 많아지는 시대적 아이러니의 표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급수입옷감으로 만든 양복을 입은 사람은 일부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남성들은 간소화된 옷을 입거나 구호물자, 혹은 전쟁기간동안 보급 받은 군복을 입었다. 간소화된 남성복의 형태는 1950년 4월 ‘내핍생활개선안’, 1955년 7월 ‘국민생활간소화’란 이름으로 여름에 노타이 반소매셔츠를 권장되었고 춘추·동복으로 ‘국민복’〈Fig. 7〉착용을 권유하였다. 〈Fig. 6〉는 고아원 원장인 Mr. Lim을 촬영한 사진인데 배추가 수확되기 시작하는 시기(Chinese cabbage, n.d.)와 사진 속에서 보이는 인물들의 차림으로 보아 6월에서 9월 사이로 추정되며 당시 장려되었던 노타

7) “汙濫한日用雜貨 消費大衆 엔 畫中之餅”, 1948. 9. 5. Dongailbo

“국내산 모직으로 만든 것도 일만 오천원부터 이만원 정도 좀 더 사치품을 취하자면 마카오지로서 삼만원부터 오, 육만원대라는 실로 엄청난 가격이다.”

8) “戰時生活衣裝決定”, 1952. 2. 27. The Kyunghyang Shinmun

“그리고 정부가 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 옷감으로 된 견직물 가령 뉴튼, 하부다이, 양단, 레스, 벨벳트와 모직물인 마카오 양복지로 된 양복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Fig. 6〉 No. 125. Mr. Lim, Orphanage Honcho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e)

〈Fig. 7〉 (‘Gukminbok’, 1950)

〈Fig. 8〉
No. 200. Papasan
Under an A Frame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f)

〈Fig. 9〉 No. 303,
Papasan Carpenter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g)

이·반소매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남성들의 군복차림은 1945년 해방이후 미군의 주군과 함께 유입된 미군물자 및 구호물품과 더불어 전쟁기간 동안 군인들에게 보급된 군복이 휴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착용되면서 민간인과 군인의 구별이 어려워 사회적인 이슈를 낳았다. 1950년대 치안유지와 군작전상의 중대한 이유로 국군은 현병대를 동원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하였는데 단속대상에

는 국군의 군복과 미군제품, 군복의 개조품, 국방색 군복지로 만든 변조품 (*‘70,000 cases for violating’, 1956*) 등이 있었고 염색을 하였거나 변색된 군복은 단속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병대의 단속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3일간의 여유를 드릴테니 염색하십시오.” (*‘macao gentleman’, 1953*) 하고 염색을 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단하여 입을 것 (*‘Crack-down of wearing’ 1950*)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그러

〈Fig. 10〉 No. 313, Country Gentleman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h)

〈Fig. 11〉 No. 273. Small House Many Honcho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i)

나, 절대적인 빈곤과 물자부족에 시달렸던 당시 상황에서 군복은 암시장에서 쉽고 싸게 구할 수 있었을 뿐더러 비교적 품질이 좋아 대중적으로 많이 선호되었다. 〈Fig. 8, 9〉에서 알 수 있듯이 군복은 남자들이 주로 착용하였고, 착용단속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군복착용은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방색의 군복지는 남성의 의복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빼나 어린이의 옷을 만드는데도 많이 활용되었다.

전통복식을 입은 남성은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착용하였는데 바지저고리 차림에 조끼나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와 같은 모자를 쓰기도 하였다. 흰 바지저고리를 주로 입었고 회색 혹은 갈색계통의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흰색, 검정색, 회색, 진한 갈색 등의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간혹 두루마기 대신 코오트를 착용한 모습도 보인다.〈Fig. 8, 9〉

여성복식은 한복과 서양복을 혼용되었고, 일상적으로 몸빼가 착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6.25전쟁 이후, 여성들의 양장착용이 증가했다는 선행연구와 기사보도가 있었지만 대다수의 여성은 한복을 일상복으로 착용하고 있었으며 간혹 코트나 스웨터와 같은 서양복을 덧입었다. 긴 고름이 달린 저고리에 긴치마를 입은 전통형의 한복과 발목위로 올라오는 길이의 짧은 치마에 브로치나 단추로 저고리를 여민 개량한복이 흔해져서 입혀졌는데 어린 여자의 치마길 한복은 대부분 치마길이가 짧은 개량형 이었다.

주로 사용된 직물은 생명주, 명주, 문단, 공단 등과 같은 전통직물과 외국산 양단, 벨벳, 나일론, 우라기리⁹⁾, 하부다에¹⁰⁾, 뉴퐁¹¹⁾과 같은 수입 직물이 사용되었다. 긴 고름과 수입 옷감은 이 시기 여러 차례 복장간소·옷감절약·사치근절을 위하여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제정¹²⁾되었지만 그 실효가 불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Fig. 12, 13〉

몸빼는 일본이 1937년 중일전쟁에 이은 1941년 태평양 전쟁 때 전시체제전환과 물자충동원과 여성 노동력 착취를 위해 보급한 일본여성의 노동복으로 바지의 통이 넓고 밑단에 고무줄을 넣은 바지형태의 옷이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적으로 보급되고 착용을 강요받았지만 속옷으로 입었던 가랑이가 보이는 바지를 겉옷으로 입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 보급률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야외활동과 경제활동을 했던 여성들의 노동복으로 잔존하였던 몸빼는 6.25전쟁기간

9) 우라기리는 직물을 두 층으로 직조 한 후 일부분을 잘라내어 끝 부분의 실이 마치 pile처럼 남아 있는 상태의 소재를 말한다.(Kim, 2013)

10) 하부다에는 ‘하부다이’로도 불렸던 직물로 일본비단이다. 얇고, 부드럽고 광택이 있는 비단으로 1920년대 중반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Kim, 2013)

11) 경사에 꼬임이 없는 무연사, 위사에 강연사를 사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통 유퐁, 뉴텐으로 불렸다. 신축성이 좋으며 얇고 촉감이 깔깔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Lee, 2008)

12) 1950년 4월에 차관회의 건의로 제정된 ‘국민내핍생활개선안’, 1952년 8월에 공포된 ‘전시생활실행령’ 등이 있다.

〈Fig. 12〉 No. 292, Typical Shopper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j)

〈Fig. 13〉 No. 279, Young Country Girls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k)

〈Fig. 14〉 No. 176. Stands set out on Street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l)

〈Fig. 15〉 No. 291
Shopping Center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m)

〈Fig. 16〉
Cutting Little
Girls Hair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n)

을 거치면서 일상복으로 정착되었다(Yoon, 2011). 이것은 전쟁기간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몸빼 착용 장려와 더불어 피난생활의 경험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하여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Fig. 14〉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는 전쟁참전으로 인한 가정내 가장의 부재가 길어지고, 남편 사망으로 인한 미망인의 수가 급증하여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전후에도 참여율이 45%이상 높게 지속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을 계기로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은 세계 1, 2차 대전을 겪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나타났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Chung, 1982; Yang, 2003; Yoon, 2011). 물론, 50년대에도 노동복으로 입게 된 몸빼와 바지(즈봉)류에 대한 구별이 있었던 것¹³⁾으로 여겨

13) 몸빼와 바지에 관한 인식구별은 1953년도 9월 3일 경향신문의 기사 “生活改善運動을 于先改善하라.”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Fig. 17〉 No. 89
ANZIO in style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o)

〈Fig. 18〉 No. 90
Typical Orient
Look DA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p)

〈Fig. 19〉 No. 191,
Moose-Maid-at Market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q)

〈Fig.20〉 No. 296,
Mamasan Talking to Sgt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r)

지지만 ‘몬빼, 통바지, 활동바지, 활동복, 전시활동복’ 등으로 명칭된 몸빼의 일상적인 착용은 복식사적인 측면에서 조선시대 왜란과 호란 이후 여성들의 내의 류로만 입혀졌던 바지 류가 6.25전쟁을 계기로 약 300여년 만에 외의로 입혀지게 된 획기적인 사건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여성들의 몸빼를 입는 방식이다. 〈Fig. 15, 16〉에서 보이듯이 여성들은 치마저고리 차림에 몸빼를 치마위로 덧입었는데 이는 전통복식과 외래복식이 같이 착용되는 혼재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부녀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입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의 저고리 길이가 허리를 가릴 만큼 길지 않았고 가랑이가 트인 몸빼가 치마 안에 입는 속옷을 연상시켜 민망함을 느꼈기 때문에 치마와 몸빼를 같이 덧입었고 상황에 따라 치마를 밖으로 빼어내어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양장 차림은 6.25전쟁이후 급증하였고¹⁴⁾

...(전략) 계몽반의 선각, 네가 아무리 몬빼맵시로 전시형으로 검소하게 차리고 군복 비슷한 복장으로 지사연하게 차리고 나서도 농부에게는 미군복 와이샤츠가 부럽고 나사지부인(羅紗地婦人)네 즈봉을 한번 입어 보았으면 싫을것도 인정이 아니겠는가. (후략)

14) “獨白錄(19) 流行과美”, 1953. 7. 27. The Kyung-hyang Shinmun

대부분 구호물자로 받은 단품의 서양복과 전통복장을 혼용하여 착용하였는데 남성과 같이 완전히 성장한 양장차림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Fig.17, 18, 19〉에서 보이는 여성들은 H라인 스커트나 플레어스커트에 블라우스를 입고 어깨패드를 넣은 밀리터리 풍의 자켓을 입었는데 이는 1950년대 유행했던 것으로 미국식 스타일이었다(Seon-Woo, 1993). 당시 양장을 선호하고 착용한 여성은 양공주를 선두로 하여 연예인 및 부유층의 부인들이었으며 기자와 비서, 농촌지도원으로 일하는 젊은 전문직의 여성도 양장차림을 하였다. 빨간 립스틱을 바른 양장차림의 여자를 양공주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한복차림을 한 여성은 여염집 여자라는 인식이 있었다(Kim, 2007).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진에 보이는 여성도 미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Fig. 16〉의 통역사로 보이는 여자의 한복차림새와 대조적이어서 당시 여성복식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또한 전설한 것과 같이, 양장착용은 젊은 전문직 여성들도 선호하였는데 1955년 서울 중앙방송국에서 일본어 방송 여자아나운서 채용에 응

“해방후로 유행하기 시작한 미국식 치장은 사변 후 더 왕성해진 것 같다.”

〈Fig. 21〉 'Applicants for announcer',
(*'Woman's job'*, 1955)

〈Fig. 22〉 'One-piece dress',
(*'One-piece dress'*, 1955)

〈Fig.23〉 No. 173. Burned out Market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s)

〈Fig. 24〉 No. 287,
Mamasan who had
been shopping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t)

〈Fig. 25〉 No. 300,
Korean Policeman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u)

시한 119명의 복장에 대한 기사문에 “양장을 입은 사람이 93명(코오트 착용자 57명), 한복을 착용한 자가 26명이며 대부분 화려한 최신모드로 차려 입었다”는 것을 기사화하였다(Fig. 21)(*'Woman's job'*, 1955). 이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복에서 양장 착용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관하여 Kim(2007)은 여성의 양장차림은 신분과 직업을 적극 드러내는 사회적 행위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후, 한국복식의 기본복이 한복에서 양장으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1954년 신문에 신설된 가정란과 55년부터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합성섬유 및 의류착용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기사들이다. 신문에 신설된 가정란에는 옷 만드는 법을 옷본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Fig. 22) 이러한 기사는 가정 내 주부들의 양재활동을 독려하고 이후 서양복 착용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복식문화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색복의 유행이다. 특히 검정색이 유행하였는데(Fig. 23, 24)검정색복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의복개량과 백의금지를 위해 검정색 염료와 더불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해방 후 민족의식이 고취되어 다시 백의 착용이 증가하였지만 6.25전쟁으로 인한 물자의 결핍으로 인한 경제성과 실용성 등의 이유로 전쟁기간동

안 지속적으로 ‘색복’이 장려되고 애용되었다. 또한, 민간인의 군복착용으로 인하여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기 위해 군은 일반인과 상이군인의 군복을 염색할 것을 장려했는데 이때 남학생들은 군복을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어깨의 패드를 넣어 과장하여 멋을 부렸으며 곧 여학생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행되었다. 경찰복 역시, 1953년 복제를 개혁하였는데 전쟁기간 착용했던 전투복대신 흑색 정모와 제복을 제정하였다(Fig. 25).

1952년 9월 23일자 경향신문(‘Color in fashion’, 1952)에서 다룬 금년의 유행색에 대한 기사에서 “금년의 유행색은 흑색에서부터 곤색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검정색을 비롯한 어두운 계통의 색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1954년부터 55년까지 미군이 촬영한 슬라이드필름 418장과 흑백사진 16컷을 선행연구와 당시의 복식문화에 관한 신문기사, 기타 시각자료 등을 분석하여 전쟁직후 한국의 패션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당시의 복식문화는 절대적 물자 결핍으로 인하여 유입된 구호물품과 군수물자, 밀수품 등의 서구물품의 유입과 피난의 경험으로 의복의 활동성과 기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대로, 한복과 양장의 혼재가운데 양장중심으로 복식문화가 전환되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남성들은 주로 양복과 군복을 일반적으로 입었는데 민간인의 군복착용이 치안상의 문제가 되어 염색하거나 재단을 달리하여 입도록 권고하였다. 여성들은 대부분 한복과 서양복을 혼용하여 착용하였고 긴 고름의 저고리와 치마의 전통형 한복과 치마길이가 짧은 개량형 한복을 입었다. 전통직물을 비롯하여 외국산 양단, 벨벳, 나일론, 우라기리, 하부다에, 뉴똥과 같은 수입 직물이 사용되었다. 긴 고름과 수입 직물은 해방직후부터 옷감절약과 사치억제를 위해 규제되었으나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양장차림은 남성의 양복차림에 비해 매우 드문데 자료 속에 보이는 여성의 모습은 1950년대에 유행을 그대

로 반영하고 있었다. 다만 당시 양공주, 연예인, 부유층의 부인 등과 같은 일부 계층과 젊은 전문직 여성들이 양장 차림을 선호하였다. 여성의 양장차림이 적은 것은 남성들의 양복착용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근대화의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진 환경에 비해 여성들은 한복을 개량하고 간소화하고 사치규제에 초점을 맞춘 생활개선운동과 빨간 립스틱에 양장차림은 양공주, 한복을 어엿집 규수를 의미하는 사회적인 편견의 영향으로 보인다. 여성복식문화 중 가장 큰 특징은 일상복으로 몸빼를 착용한 것이다. 몸빼는 일제강점기 말 일본에 의해 물자동원과 노동력 착취를 위해 보급된 것으로 치마 속에 입는 속옷과 비슷하고 가랑이가 터진 것을 밖에 입는 것을 꺼려하는 당시 풍조 때문에 실제 보급은 저조했다. 그러나 야외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는 일부 여성들의 노동복으로 받아들여졌는데 피난의 경험과 전쟁으로 인한 참전가정 가장의 장기적 부재, 미망인의 급증 등의 이유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정부차원에서 몸빼 착용 장려의 영향으로 일상적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양난이후 여성의 내의로만 착용되었던 바지가 다시 겉옷으로 착용하게 된 것으로 복식사적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어린이의 복식은 어른의 옷과 마찬가지로 서양복과 한복을 혼용하여 입었는데 구호물자를 받기 쉬운 서울지역과 고아원의 아이들은 대부분 서양복을 착용하였고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지방에 사는 아이들은 주로 한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직후의 지역,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어린이 복식과 이들에게 미친 구호물자의 영향에 대해선 본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색복의 유행이다. 주로 검정색이나 곤색 등 어두운 색 계통이 유행되었고 경제성, 실용적인 측면과 군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백의를 금지하고 색복을 장려하여 거센 반발을 샀지만 전쟁을 겪으며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색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

- Ahn, T. Y. (2011). Women Warriors" at Home Front : Women's Economic Activity during the Korean War. *Jungangsaron*, 33, 257-295
- Chung, S. J. (1984). A comparative study of a costume during and after world war I & II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ecc03776232d30cf
- Chinese cabbage. (n. d.). In encyclopedia Naver online.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9588&mobile&cid=46686&categoryId=46694>
- Color in fashion of this year [今年の流行色] (1952 September 23).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20923003292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2-09-23&officeId=00032&pageNo=2&printNo=1920&publishType=00020>
- Crackdown of wearing a military uniform of the civilian from march 3 [軍服着用團束 三月一日부터] (1950 January 30).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001300020910202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01-30&officeId=00020&pageNo=2&printNo=8161&publishType=00010>
- Gukminbok is in spring, autume and winter [春秋·冬엔國民服] (1955 July 9).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507090020920301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5-07-09&officeId=00020&pageNo=3&printNo=9959&publishType=00020>
- Hahm I. H. (2005). The Korean war and its impact on the family life and women's status. *Journal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the republic of Korea*, 4(2), 29-45.
- Hahm I. H. (2006). The Korean war, families and the women's multi-layered modernity. *Society & theory*, 9(1), 159-189.
- Is nylon sumptuous fabric? [나이론은奢侈냐] (1954 June 19).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061900329202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06-19&officeId=00032&pageNo=2&printNo=2552&publishType=00020>
- Kang, D. W. (2002). The economic effect of physical losses in the Korean war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2b64f38e62edd64f
- Kang, S. H. & Jung, K. S. (2014).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the US Army Signal Corps Photo Unit.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7(2), 296-306.
- Kim, E. K. (2006). After Korean War, 'Tradition' in the Process of the Reconstruction and Wome. *Journal of Asian Women*, 45(2), 7-48.
- Kim, E. K. (2009). A study on the new-life movement in the 1950s - Focusing on a food-clothing-shelter improvement movement of the Women's bureau. *Woman & history*, 11, 203-240.
- Kim, E. J. (2013). Modernization and variations on Korean women's fashion and consumption culture in modern Korean society of the 1920s-1930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7b7556238a7a6c27ffe0bdc3ef48d419
- Kim, H. G. (2005). Photography of the Korean war and it's assembled memor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9(2), 61-83.
- Kim, H. G. (2010). A Study on Korean War Photographs of Pictorial History Books Published in the 1980' and 1990'.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14(2), 97-120.
- Kim, H. G. (2011). Women in Korean War Photography.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2), 123-145.
- Kim, M. J., Kim H. Y., & Choi, W. H. (2005). Characteristic and transition of woman's saenghwal-han-bok after moder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7(2), 137-158.
- Kim, S. J. (2007). Reading the transformations of women's clothes in postcolonial Korea: gender politics of tradition and modernity. *Issues in feminism*, 7(2), 281-320.
- Kim, E. K. (2006). After Korean war, 'tradition' in the process of the reconstruction and women. *Journal of asian women*, 45(2), 7-48.
- Kim, D. K. (2013 June 24). 4 U.S. Army took almost a picture of early Korean war [6.25 전쟁 초기 사진 美軍 4명이 거의 다 찍었다.]. Retrieved from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6/24/0503000000AKR20130624081800004.HTML>
- Lee, I. H. (2003). The Korean War and the Expansion of Women's Labor. *Hangulsahakbo*, 14, 251-278.
- Lee, H. J. (2008). A study on historical change in female jeogori in modern time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abff75ba2aebfe7affe0bdc3ef48d419
- Lee, Y. H. (2015, June 24). [Special Issue: Korean War] Only last about 5~6 years to research the materials on Korean war [6.25 특집, "6.25관련 자료 수집 5~6년밖에 남지 않아"]. Retreved from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

- __no=81&bbs_id=BBSMSTR_00000000138&ntt__writ__date=20150625
- Macao-gentleman has rapidly increased [急造 「마카오」紳士汎濫] (1953 May 3).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305030032920202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3-05-03&officeId=00032&pageNo=2&printNo=2141&publishType=00020>
- One-piece dress of the young [젊은이들의 『원피스·드레쓰』] (1955 October 9).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5100900209204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5-10-09&officeId=00020&pageNo=4&printNo=10051&publishType=00020>
- Old leaders [舊態依然한 指導層] (1955 July 15).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5071500329203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5-07-15&officeId=00032&pageNo=3&printNo=2942&publishType=00020>
- Park, C. B. & Kang, H. W. (1994). The changes in cultural characteristics of dress and adornm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2, 23-43.
- Park, G. S. (1993). A Study on the Factors of Change in the Korean Dress and Personal Adornment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1), 33-68.
- Park, J. H. & Min, B. W. (2011). Scapegoats of Divided Korea -Korea Photos' view of Women in the Military Camp Tow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2(4), 151-159.
- Park, J. H. (2011). Surplus of Korean War - Eyes of Korean Photographs Looking at the Mixed Blood.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2(6), 193-200.
- Park, S. J. (2010). The formation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n the 1950s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eb09&control_no=6ca6a0d62925bd21ffe0bdc3ef48d419
- Promulgation of war time life improvement act [戰時生活施行令公布] (1954 August 30.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20830002091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2-08-30&officeId=00020&pageNo=2&printNo=8957&publishType=00010>
- Reconstruction of Korean textile industry to the level of before the war[纖維工業은 事變前水準에] (1954 November 11).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11110020920301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11-11&officeId=00020&pageNo=3&printNo=9748&publishType=00020>
- Reconstruction and economic aid [경제복구와 경제원조] (n. d.). Retrieved from <http://theme.archives.go.kr/next/unKorea/supportAfterWar.do>
- Reliefs such as a grain, are arriving in Korea before the cold [糧穀等救護物資 추위 앞두고 陸續入荷中] (1950 October 26).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010260020910200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10-26&officeId=00020&pageNo=2&printNo=8332&publishType=00010>
- Seon Woo, E. J. (1993).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Korean modern women costume-from 1950s to 1980s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eb09&control_no=7a74db788a9caf72
- 6 billion won damage only in a textile industry, Horrible damages of Korean industries by the war [纖維業만 六百億 놀라운工業施設被害] (1950 November 7).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0110700209102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11-07&officeId=00020&pageNo=2&printNo=8344&publishType=00010>
- 70,000 cases for violating of a military uniform, a tough khaki color [軍服團束 하루 七萬件 國防色 『옷』受難] (1956 December 5).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612050020920301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6-12-05&officeId=00020&pageNo=3&printNo=10473&publishType=00020>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a).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b).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c).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d).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e).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f).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g).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h).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i).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j).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k).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l).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m).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n).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o).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p).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q).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r).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s).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t). Phtographic Film.
-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 (n.d.-u). Phtographic Film.
- U.S. Army & Yongsan base. (n.d.). *In encyclopedia Naver online*.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3809&cid=40942&categoryId=31746>
- U.N. Approval of 8 plans for reconstructing of South Korea [韓國經濟八原則 國聯經社理事會서 可決] (1950 October 23).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0102300209101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0-10-23&officeId=00020&pageNo=1&printNo=8329&publishType=00010>
- Western clothes. (n.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online*. Retrieved from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keyword=%EC%99%B8%EA%B5%AD%EC%A0%9C>
- Woman's job seen through applying for the announcer [아나운서募集에서 본 女性の 職業戰線] (1955 November 23). Retrieved from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5112300209203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5-11-23&officeId=00020&pageNo=3&printNo=10096&publishType=00020>
- Yang, B. L. (2003). The project of about distinguishing of modern clothing after 9-11 terror and Iraq war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901c8be193553399
- Yoo, S. K. (1988). A study on the changes in korean women's western-style clothing (Doctoral dissertation, Ehw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9851a5f0682a5450
- Yoo, K. S. (1996).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Korean Fashion Since 1945. *Nonmunjip*, 23, 459-473.
- Yoon, J. R. (2011). A study on momppje's introduction and adoption in Korea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a458457741ffe0bdc3ef48d419